

최 병 훈 CHOI BYUNG HOON

최병훈 작가의 집에는 발에 치일 정도로 돌이 많다. 테이블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것도 돌이고 책장의 책들을 지탱하는 것도 돌이고 얇디 얇은 한지를 누르고 있는 것도 돌이다. 돌은 문 앞에도 있고 마당에도 있으며 화장실에도 있다. 거대한 돌도 있고 조그만 돌도 있으며 반질반질한 돌도 있고 괴팍한 돌도 있으며 강원도에서 온 돌도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온 돌도 있다. 심지어 그의 차에는 '전국 돌 지도'도 있다. 그가 "돌과 나무의 작가"로 불리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공장 같은 1층 작업실에는 그의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 시리즈 작품이 포장용 에어캡에 퐁퐁 싸인 채 암호 같은 019-520, 017-405, 011-369 021-583 시리즈 넘버로 표기돼 있다. "숫자를 보면 어떤 작품인지 아시나요?" "아뇨, 절대 모르죠." 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호쾌하게 웃는다. 돌과 나무를 사용해 실용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아트 퍼니처'를 만드는 그는 작품을 만들 때도 중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비워둔다. 그건 절제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선비문화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받아들이려는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휴스턴 미술관 야외에 설치된 '선비의 길(Scholar's Way)'이나 다양한 소재로 계속 제작되는 '명상 의자(Meditation Chair)' 시리즈를 보면 숭고한 산이나 선한 강줄기가 떠오른다. 마침 그의 책상 옆에도 그가 좋아하는 말이라며 붙여 둔 노자의 유명한 말이 있다. '뛰어난 솜씨는 서툰 듯하고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다'. 술도가에서 막걸리를 거를 때 쓰는 도구와 세네갈의 나무 조각상, 웬델 캐슬의 의자가 한데 있는 그의 공간은 조각가의 집 같기도 하고 서예가의 집 같기도 하고 학자의 집 같기도 하고 목수의 집 같기도 하다. 그가 먼 길을 왔다며 우리에게 빵과 커피를 내주었다. 여기는, 서울에서 자유로를 따라 오다가 평양과 개성 표지판을 머쓱하게 마주한 후 만나게 되는 도시 파주다.

문 앞에 두꺼비 석상이 있더라고요.

돌 사러 갔더니 서비스로 하나 주더라고요. 두꺼비 석상을 집 앞에 놓으면 예로부터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죠.

두꺼비 석상이 오고 나서 재물이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그 돈을 다 돌에다 쓰고 있고요.

서울에서 파주에 올 때마다 평양과 개성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도시라 그런지 파주 하면 낯선 느낌이 있는데요. 이 도시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년 전에 왔어요. 20년 전 여긴 완전히 숲 속이었어요. 당시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라 30분 안에 출퇴근 가능하고 숲 한가운데 있어서 선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네요. 처음 왔을 때는 집 3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섰죠. 외국 사람들에게 서울이 불안한 도시처럼 느껴져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파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는 휴전선 바로 앞이고 대남방송도 들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싶

있어요. 하지만 막상 살면 외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황량함은 못 느껴요. 전 이 도시에 온 걸 운명으로 생각해요. 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최창조 교수는 현대 지리학에 전통 풍수를 접목한 분이죠. 그분이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통일한국의 수도 자리는 파주'라고 하더군요.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어요. 출판단지 뒤쪽으로는 심학산이 있고요. 이 동네가 명당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 온 후 그 칼럼을 보고 '내가 자리를 잘 잡았네' 했죠.

공간 자체가 도시 안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독립된 섬 같고 고요하네요.

그전에는 숲 한가운데 있었으니까요. 한강도 보였죠. 서남향이고요. 20년간 제 작품 활동이 성장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풍수 지리 사상(산수의 형세와 방위 등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이나 묘지를 구할 때 가려서 선택해야 한다는 자연관)을 믿으세요?

풍수 지리에 따라 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아요. 저에게 장소는 개인적인 감각이에요. 이 자리가 좋다는 감각. 사람들이 남향을 왜 선호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니까 집 안쪽 깊숙한 곳까지 해가 다 들어요. 열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서 살기로 결정하기까지 이 동네를 6개월간 보고 다녔어요. 예술가들에게는 '감각'이 또 절대적이니까요.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어요. 유년기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우리 집은 경주 최씨로 부모님은 경남 합천이 근거지인 분들이죠. 경주에 선산이 있고요. 부모님은 일제 시대 때 태평양 전쟁 피해서 강원도 태백산 밑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지는 한의사였고요. 전 9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위에 형이 3명, 누나가 5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태백산 밑에서 자라다가 그 이후에 서울로 왔어요. 거기서는 산딸기도 먹고 친구들과 찜도 캐러 다니고 냇가에서 얼음 치기도 하고 산비탈에서 눈썰매도 탔었죠. 기차가 들어오는 동네는 산 너머에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산 너머에서 기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님들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기적 소리가 바깥세상과 이 산골을 연결해주는 소리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산 너머에 대한 동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인도, 네팔도 혼자 여행했고 안나푸르나는 4천미터까지 트래킹했죠. 피오르드의 끝도 가보고 스코틀랜드 끝 하이랜드도 가봤고요.

테이블과 모자 걸이, 명상 의자 등 직접 만든 가구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테이블의 나무 상판을 돌 3개가 지탱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삼각형은 너무 안정적이죠. 긴장감이 있으려면 역삼각형이어야 해요. 삼각형은 내 손길이 필요 없죠. 내 세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거죠. 건물 지을 때 이 테이블을 제일 먼저 들여놓았어요. 많이 낡았죠. 가장 많이 사용한 내 작품이에요.

이 돌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강원도 홍천에서 왔을 거예요. 돌의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요. 돌이라는 건 억겁의 세월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거죠. 작품 만드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는데 전 "억겁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말해요.

돌을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나요?

돌의 성격은 지형에 따라 다 달라요. 이렇게 문양이 있는 돌은 강원도 영월에서 온 거예요. 문양 석이라고 해요. 모양이 둥글둥글한 건 호박돌이라고 하는데 설악산에서 온 거죠.

영월 돌에는 왜 문양이 있나요?

그건 신에게 물어봐야죠.

집 군데 군데 돌들이 많아요. 화장실에도 있고 책장 사이에도 있고 온통 돌들이예요.

돌의 물성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눈 앞에 두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자의 트로트 노래만 듣다가 모차르트 들으려고 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책장 중간에 돌을 놓아 책장을 받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돌을 받치고 있는 사람 모형을 갖다 놓음으로써 돌의 규모를 느끼는 겁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에 다 이유가 있는 듯한데, 영감을 얻기 위해 가져다 둔 게 또 있나요?

화분 받침으로 쓰고 있는 저 나무는 원래 인도네시아 농기구예요. 생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그 위에 화분을 놓았어요. 나무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물건입니다. 넓적한 도자 위에 화분을 놓은 건 한국식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서예요. 한국 정원을 느끼고 싶거든요. 한국 정원을 보면 보통 연못이 있고 그 위에 소나무 있는 독립된 섬이 하나 있죠. 원래는 도자 위에 물을 놓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넣었어요. 1997년 파리의 골동품점에서 산 토넷 체어 No.14(Thonet Chair No.14)는 현대 가구의 효시라 곁에 두고 있어요.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래더백 체어(Ladderback Chair)는 앉아 보면 아주 불편한데요. 가구가 실내 공간의 조형물이자 아트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의자라 갖다 놓았죠.

웬델 캐슬의 의자 '열반 Nirvana'과 시로 구라마타의 의자 '달은 정말 높아 How High The Moon'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저 두 작품을 컬렉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두 작품을 내 작품이랑 나란히 놓았어요. 같은 급이다 이거죠. 웬델 캐슬은 미국 아트 퍼니처 1세대라 의미가 있어요. 시로 구라마타의 의자는 일본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일본의 발처럼 가린 듯 안 가린 듯한 느낌이죠. 일본의 정체성이 현대화된 겁니다. 생활 속에 그런 문화나 건축 구조나 있어서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어요. 둘 다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구입했어요.

막상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건, 허먼 밀러의 임스 라운지 체어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책을 주로 보신다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창을 열어놓고 저녁 시간에 보통 저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강원도 장(cabinet)인데 K 옥션에서 낙찰 받아 샀어요. 저 장 덕분에 이 공간에 한국적인 여유가 생겼죠. 그 위에 있는 수석은 충주 목계에서 구입한 거예요. 전통적인 형태의 수석이 아니라 굉장히 컨템포러리한 수석이죠. 그 위의 글씨는 석천 이경희 선생이 써준 '무위자연(無爲自然)'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받아들이다'는 도교 사상이 제 작업 철학이라 특별히 써 달라고 부탁했죠.

옛날 선비들은 저런 수석을 놓고 감상하곤 했는데요. 저 수석을 보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강인하고 힘이 있는 자연이 떠오르죠. 볼 때마다 '아, 너무 잘 샀다' 생각하고요. 저 수석보다 훨씬 비싸게 산 수석이 있는데 그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잘 보지도 않아요.

강원도 장과 수석, 무위자연 글씨가 있는 저 곳이 당신의 영혼이 있는 공간인 걸까요?

그렇죠. 동시대적이고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실 저의 저런 정체성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다른가? 제가 터득한 건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남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제 생명력이고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저의 화두죠.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계속 접하려고 해요. 그 호흡이 내면에 축적되면 어느 순간 익어서 내 것으로 나오니까요.

'무위자연'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자연은 위대해요.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위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정신이 있어요. 우리 정서는 자연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거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자기 삶을 찾아가는 게 무위자연이죠. 불교에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에 따르면 중도는 중간이 아니고 전혀 다른 극과 극의 가치를 융합하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융합하려고 하는 두 가지 극과 극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원래 제 작업의 기초는 나무였어요. 제 작업에 돌이 들어온 건 나무가 갖고 있지 않은 돌의 물성 때문이었어요. 돌은 나무보다 훨씬 무거워요.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해요. 나무와 돌처럼 서로 다른 물성의 가치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나무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돌은 차갑고 거칠죠. 전 작품 마감도 한쪽은 거칠게 하고 한쪽은 광택이 나게 합니다. 다른 물성의 두 가치로 조화를 이루는 게 내 나름의 중도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컬렉션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저울과 자(ruler, scale)더라고요.

임스 라운지 체어에서 최근에 읽은 책은 뭔가요?

두꺼워서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가 쓴 <동양 예술미학 산책>을 읽고 있어요. 장파의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를 오래 전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 책의 한국적인 버전 같은 거죠. 장파는 시대별로 음악, 문학, 미술, 철학 등의 영역에서 서양과 중국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비교하는 식이죠.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 책이 저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중국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일본과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최근에는 일본의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의 정원은 일본의 정신이니까요.

모든 책 앞장에 구입한 날짜와 사인이 적혀 있네요. 책 등에도 사인이 있고요.

내 책이라는 거죠. 돈 터치(Don't Touch). 책 구입한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 써 놓았어요.

그럼 중국과 일본, 한국의 미학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은 미학에도 반영돼 있어요. 그들은 규모가 달라요. 생각이 크고 광대해요. 그들은 우주를 논하죠. 운강 석굴 등 중국의 3대 석굴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있죠. 규모로 인해 압도당합니다. 신라 석굴암보다 3백년 앞서 있고요. 규모로 보면 신라 석굴암은 중국과 경쟁이 안되죠. 하지만 신라의 석굴암 본존불은 정교하고 섬세해요. 미소나 자태, 비례가 나무랄 데 없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본존불은 겸손하고 온화해요. 은근한 기품이 있고 내면의 깊이가 있어요. 일본은 작은 데서 큰 걸 느끼죠. 작은 자갈로 바다와 물결을 표현하고 거기에 작은 수석 하나 놓고 대자연을 느끼는 게 일본이죠. 제가 말하는 정체성은 수구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 시대의 정신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죠. 예전 가치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도전해야 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요. 나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방해 인자죠.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락하니까요. 작가는 그걸 거부해야 해요. 그래서 감동을 찾으려고 자주 떠납니다.

작업실 문 옆에 전국 사찰지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시간만 되면 저 지도에서 안 가본 사찰을 갔어요. 웬만한 곳은 다 가봤죠. 구례 화엄사, 양산 통도사 다 너무 기가 막히죠. 현존하는 사찰 말고 폐사지도 다녔어요. 폐사지에는 목재 건축은 다 없어지고 돌만 남아 있어요. 그 돌들은 수천년간 나뉘군 거잖아요. 그게 제 작품에 자주 연출이 됐죠. 폐사지인 경주 감은사지에 가면 받침 석대가 쪽 놓여 있는데 그게 저에게 감흥을 줬어요. 서울공예박물관에 설치한 제 작품 'Afterimage 2020'을 보면 돌 덩어리들이 폐사지에 놓인 것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잖아요. 돌을 덩어리째 던져 놓은 거죠.

시간에 따라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에 오히려 매료되는 건가요?

수천년의 세월이 거기 얹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서 역사 인식이 생겨요. 내 시대의 역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쓴다는 겁니다.

활동 초기에 만든 작품과 요즘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더 정교하고 다듬어진 모양새에서 좀 더 투박한 모양새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런 작업 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투박한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가요?

네. 자연에 더 가까이 가려는 거죠.

인도네시아 현무암은 2년 간 묵혀 두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고요.

속은 새까맣고 밖은 거칠고 물성 자체가 매력적이었어요. 저 소재를 어떻게 내 작품에 도입할 것인가. 그 덩어리를 보면서 이렇게도 그려봤다가 저렇게도 그려봤다가 그렇게 2년 걸린 거죠. 오며가며 돌을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획으로(in one stroke) 그렸죠. 단순하게 가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서울 포시즌스 호텔 앞에 '일필휘지(in one stroke, 막힘없이 한 번의 붓 놀림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라는 작품도 있죠. 한번에 그리는 기법, 작품을 만드는 태도나 방식과도 연결

이 되는 생각인가요?

제 일필휘지 작품을 보면 현무암 원석이 아래에 있고 다듬은 돌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두 개의 피스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땅을 향해 있고 하나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을 가리켜요. 음양의 가치가 한 작품에 담겼으면 했어요.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이라는 작품명 시리즈로 계속 작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빅뱅 이후 지구의 진화 과정을 생각해보면 돌이 태초의 잔상 아니겠어요. 역겹의 세월이 만든 그 소재를 내 작업의 한 부분으로 차용하니 그 위대한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당분간은 계속 그 제목을 사용할 것 같아요. 나무와 돌을 이용하는 제 작업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매번 작품 제목을 달리 하고 신경 쓰는 것도 예사 일이 아니잖아요. 귀찮기도 합니다.

물푸레나무에도 검은색 도장을 칠하고 옷도 검은색을 주로 입는데요. 검은색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 가나아트센터에서 했던 전시 제목이 '침묵의 메시지'였어요. 부산 조현화랑 전시 제목은 '침묵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스럽고 메시지가 넘쳐나요. 각자가 다 자기 말을 쏟아내요. 침묵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침묵한다고 해서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죠. 침묵 자체도 메시지가니까요. 조선조 소반이나 장(cabinet)을 보면 장식이 없죠. 사방 탁자 보면 뼈대밖에 없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장식한 것에는 더 궁금한 것도 없죠. 지금 가장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에게 궁금한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장식이 없는 사방 탁자는 내면에 미적 감성이나 정서가 있어요. 절제죠. 절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제어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 메시지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생각해줘야 하니까요. 대신 자신의 내면에 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죠. 더 귀한 메시지가 되고 더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검은색은 모든 걸 함축하고 있어요. 모든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니까요. 옷은 꼭 검은색만 입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작품 색에 맞춰 입게 되긴 하더라고요.

먹 드로잉도 하시는데 글씨도 쓰시나요?

글씨는 안 써요. 쓸 자질이 안돼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 화려한 외관보다는 내면의 깊이에 치중하는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데요. 명상도 하시나요? '선비의 길'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 길에는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 것 같나요?

임스 체어에서 책 보기 전 후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게 명상 아닐까 싶어요. 아침에 1시간 반 운동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에 1시간 정도 걸어요. 그게 저에겐 명상의 시간이예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운명이라는 건 거역할 수 없어요. 좌우명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세상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존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돌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진도 안 나가는 책도 읽고 그러니까.

‘명상 의자’ 작품에 앉아 있는 당신 사진과 부처가 TV를 보는 ‘백남준의 TV 부처(TV Buddha)’ 작품 사진은 왜 나란히 놓은 건가요?

중앙대학교 사진과의 임영균 교수가 NYU에서 공부할 때 백남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백남준 선생이 TV 프레임 사이로 얼굴 내밀고 있는 그 사진도 그가 찍었죠. 하루는 임영균 교수가 여기 작업실에 왔어요. 여기서 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백남준 선생의 ‘TV 부처’ 찍은 사진이랑 컨셉이 비슷하다며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 의자가 명상 의자로 불리는 건 시선을 돌에다 맞추기 때문이에요. 자연석을 보며 명상하는 의자죠.

책장 맨 위에 얼굴 동상과 초상화 3개가 있네요. 저 분들은 누구인가요?

모두 나예요. 맨 왼쪽 동상은 조각가 이영학이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 초상화는 1986년에 화가 변종하 선생이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 초상화는 화가 이두식 선생이 그려준 거예요. 두분 다 돌아가셨죠. 마지막 드로잉은 중국 유학생이 그린 거예요.

저 4개 작품 중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변종하 선생이 그려준 초상화요. 참 잘 그렸어요. 변종하 선생은 굉장한 화가인데 안타깝게 오래 전에 작고하셨죠. 다듬어서 그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렸어요. 저의 순간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넷 중 제일 괴팍하게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난 좋아요.